

2016 여름 이화봉사단 국내교육봉사

전라북도 장수군
- 산서지역아동센터



2016. 7

산서지역아동센터 최*희

아이들과 함께 배우고 느끼면서 성장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봉사'를 하겠다는 처음의 야심찬 포부와 달리, 오히려 제가 더 많이 배우고 느낀 것 같아 한편으로 미안함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제가 평소에 누리고 있었던,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여기 이곳에서는 모두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아이들은 대부분 차로 10분은 이동해야 겨우 슈퍼마켓을 발견할 수 있는 깊은 산골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생활하는 일주일동안 평소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감사함을 다시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항상 제 옆에서 믿고 응원해주시는 부모님, 저를 도와주시는 많은 분들이 더욱 생각나고 보고 싶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또 그만큼, 이곳 아이들에게 저 또한 그런 '고마운'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하게 들었습니다. 도시에서 자라온 제가 배우지 못한 가치들이 이곳에 많이 있겠지만, 시골이 아이들이 자라고, 공부하기에 비교적 열악한 환경이라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이동이 불편하기 때문에 많은 것을 보고 경험하기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가장 받고 싶은 선물이 저금통이라던 아이들이 귀엽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태어나면서부터 '우연히' 갖게 된 많은 것들 덕분에 저는 지금의 제가 될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에게도 제가 '우연히' 찾아온 행운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제 바람이 잘 이루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착한 산서지역 아이들과 함께였기 적어도 제게는 이화봉사단이 행복한 추억, 행운으로 오래 기억될 것 같습니다.

이화라는 이름으로 활동할 수 있어서, 또 좋은 사람들과 함께 봉사할 수 있어서, 더욱 기쁜 일주일이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다시 한 번 산서지역 아이들을 만나고 싶습니다. 한 뼘 더 자라있을 아이들의 모습이 기대되기도 하면서, 그때는 서툴렀던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줄 수 있지 않을까하는 바람도 함께 가져봅니다.

산서지역아동센터 석*혜

사실 오래 전부터 교사가 꿈이었고, 꿈을 이루기 위해 사범대에 진학해야만 했던 나는 항상 교육봉사를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있었다. 그렇기에 내가 처음에 이화봉사단을 신청한 것은 단순히 교육봉사를 해야 한다는 의무감에 비롯된 것이었다. 그래서 처음부터 열정이 있었던 다른 학생들과는 마음가짐이 많이 달랐다. 그렇지만 지금은 하루에서 몇 번씩 잠을 설치며 산서아이들이 꿈에 나올 정도로 그곳에서 아이들과 많은 것을 교류하고 많은 것을 배운 것 같다.

산서 아이들의 가장 큰 장점이자 단점은 때 묻지 않은 순수함인 것 같다. 산서지역은 외진 오수역에서부터 차로 산을 넘고, 국도를 한참동안 달려야 겨우 나온다. 아이들 집도 마찬가지로 '저 곳에 누가 살 수 있을까?'라고 반문하게 만드는 외진 곳에 겨우 한 집이 있다. 그렇기에 외부인은 감히 올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저 낯선 우리를 경계하기만 하였다. 그렇지만 아이들은 이내 마음속의 경계를 풀고, 서로 나에게 많은 관심을 받기위한 모든 행동을 하는 것 같다. 심지어는 미움도 일종의 관심이라는 말처럼 그저 때리며 내가 화내기만을 기다리는 아이들도 있다.

그렇지만 그 무엇보다 모든 것을 선입견을 배제하고 그 자체를 바라보는 아이들의 시선이 정말로 순수한 것 같다. 사실 나는 그곳에서 처음으로 '다문화가정'인 아이들을 보았다. 이때까지 나에게 다문화가정의 사람들은 영화에서 항상 외진 골목에서 지내며 약한 약당으로 나오는 질 나쁜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만 연상이 되었고, 슬프게도 이것이 대부분 사람들의 보편적인 시선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렇지만 그곳에서 아이들은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과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똑같은 자신들의 '친구'였다. 그들은 누군가만 더욱 특별한 것이 아니라 그들 개개인이 특별한 아이들이라 생각한다. 그렇기에 다른 친구들의 상처를 보듬을 줄도 알고, 배려할 줄도 알며 서로가 서로의 가족처럼 화목하고 따뜻하게 지낼 줄 아는 아이들이다.

산서 아이들 중 경원이란 친구는 아빠가 일찍이 돌아가셨다. 나는 처음에 그것도 모르고 아빠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자, 아이들이 아빠에 대한 좋지 않은 추억이 있다며 이야기하지 말라고 말하며 친구를 보호하는 모습에서 알 수 있듯이 말이다.

한편, 슬픈 현실이지만 오늘날의 초등학생들은 벌써부터 10년 후의 대입을 위해 초등학생 때부터 수학교육원과 영어교육원을 다니며 선행학습을 하고 중학교, 고등학교 시험을 대비한다. 아이들은 자신들도 모르게 똑같은 교육을 받고, 어른들의 사고를 배워나가며 그것이 옳다는 생각을 하며 획일화되어간다. 그렇지만 산서아이들은 조금 달랐다. 그들에게 있어서 공부의 선택이지 강요가 아니라는 생각이 만연하였고, 그렇기에 서로가 하고 싶은 것들을 마음껏 하며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사고한다. 이런 아이들의 모습을 미래에 교사가 되고 싶어 하는 나에게 미래의 아이들에게 어떤 교사가 되어야하며 어떤 자세로 임해야하는 지에 대해 생각하게 만들어주었다.

산서지역 아이들은 조금 특별하다, 아니 많이 특별하다. 그런 아이들과 함께 1주일을 보내며 때로는 어려움도 있었지만 함께 그 과정을 극복해 나가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 그렇기에 그들과 함께 있었던 그 날들은 하나의 축복이라고 생각한다.

산서지역아동센터 최*원

사실 봉사활동을 이렇게 본격적으로 해본 것도, 교육봉사를 한 것도 이번이 처음이었다. 나는 선생님이라는 꿈을 다른 친구들보다 늦게 가진 편이었고, 고등학생 때까지도 봉사활동은 최소한의 시간만을 채우는 편이었다. 이번에 교육봉사를 하게 된 계기도, 사실은 큰 사명감보다는 친구가 권유를 해 주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번에 한 봉사활동은 시작한 계기와는 별개로 나에게 큰 전환점이 되었다.

우선 아이들과 5일동안 지내며 많은 것을 느끼게 되었다. 준비한 프로그램을 아이들이 정말 재미있어하는 것을 보며, 프로그램을 짜고 준비하는 과정과 거기에 들어간 노력에 대한 보상을 받은 느낌을 받았고, 프로그램을 열심히 즐겨준 아이들이 고맙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프로그램 외의 시간에도 아이들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며, 아이들이 정말 필요한 것은 프로그램보다도 우리의 많은 관심과 사랑이 아닐까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나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나는 아이들을 통해서 자신감도 얻었다. 사실 그림 그리는 것도 뭔가 만드는 것도 많이 좋아하지만, 내 실력으론 남들 앞에서 그림을 그리는 것은 어림도 없다고 생각했다. 초등학생 때나 중학생 때 같은 취미를 가졌던 친구들은 이미 전공자가 되었고, 나는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항상 비교가 되어서 그런 걸지도 몰랐다. 그래서 아이들이 내가 이름표에 그린 그림을 보고 '이 선생님 그림 잘 그린다!'라고 했을 때, 많이 놀랐다. 그림으로 칭찬을 받아본 건 거의 처음이기도 했고, 아이들 눈에 내 그림이 잘 그린 그림으로 보이는 게 신기하기도 했다. 그 이후로 쉬는 시간에 그림을 그려달라는 아이들에게 그림을 꽤 많이 그려준 것 같은데, 아이들이 내 그림을 보고 정말 좋아하는 것 같아서 많이 행복했다.

또한 아이들을 통해서, 교과서에서만 보던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을 피부로 직접 느꼈다. 우리나라가 점점 다문화 사회가 되어간다는 것은 초등학생 때부터 배웠다. 하지만 내 주변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거의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 깊게 생각해본 적이 없었다. 그런데 이번에 봉사활동을 가서 만난 아이들 중 대부분은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이었다. 이것을 보며, 우리나라가 다문화 사회로 변하는 것과 관련되어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이 가벼운 문제가 아니라, 정말 비중을 두어 다루어져야 하는 일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봉사활동을 하는 내내든 생각은, 그래도 아이들에게 센터의 존재가 굉장히 크고, 센터가 있어서 정말로 다행이라는 것이었다. 나는 도시에서 태어나서 자랐고, 할머니 덕도 도시에 있어서 시골 마을이 어떻게 생겼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그냥 건물 생김새가 도시와 다르고, 가구 수가 좀 적을 뿐 사람 사는 것은 비슷할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내가 이번에 경험한 산서는 생각과는 꽤 달랐다. 가구들이 꽤 멀리 떨어져 있었고, 아이들이 다들 다른 마을에서 오는 것을 보면 한 가구에 있는 아이들은 많아도 아이들의 총 숫자가 마을마다 굉장히 적은 것 같았다. 이를 보면서, 센터가 아이들에게 서로 친구, 언니, 오빠, 동생이 될 기회를 주고, 서로에게서 많은 것을 배우면서 잘 성장해 나갈 토대를 주는 것 같다고 느꼈다.

사람들이 봉사활동에 대해 이야기할 때, 봉사활동은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봉사자와 도움을 받는 사람 모두가 큰 선물을 받는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사실 전에는 그 말을 머리로는 이해하고 있었지만, 마음으로는 딱히 믿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봉사활동을 다녀오면서, 그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새삼 마음으로 느끼게 되었다. 글을 쓰는 지금에도 산서지역

아동센터에서 만났던 아이들이 그립다.

봉사를 통해서 개인적인 만족도, 많은 아이들과의 추억도, 같이 이화봉사단으로 참여한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경험과 기억도 쌓을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산서지역아동센터의 선생님들과 아이들에게, 이화봉사단의 팀원인 언니들과 동기들에게, 그리고 이화여대에게 감사함을 느끼는 이번 봉사였다.

산서지역아동센터 한*희

방학동안 보낸 시간 중에서 가장 기억이 남을 5일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저희에게 잘 해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계속 저희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5일만 있다가 떠나서 일부로 정을 안줄 줄 알았는데 저희를 많이 좋아해줬습니다. 아이들이 지금까지 본 아이들 중에서 가장 순수하고 맑아서 정말 이뻐했습니다.

아침 9시부터 저녁 8시까지 이리저리 돌아다니느라 몸이 피곤했지만 아이들이 너무 좋아서 쉴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아이들한테 주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아이들한테 받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프로그램에 투덜거리다가도 잘 참여해 주는 것이 고맙고 장난기가 많은 아이들이지만 저희를 잘 따라줘서 5일 내내 웃으면서 보냈습니다.

예상치 못한 어려운 점도 있었고 프로그램에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많이 아쉽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좋은 봉사단원분들을 만나서 5일을 알차게 보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서로 마음이 잘 맞고 다들 능력있고 봉사정신이 넘치는 분들이셔서 제가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아이들과의 좋은 인연뿐 아니라 대학 동기, 선배들과의 좋은 인연도 만들고 온 것 같습니다. 초등학생 아이들이 워낙 체력이 좋아서 같이 노느라 힘이 부족하기는 했지만 잠도 잘 자고 밥도 맛있어서 봉사를 편하게 하고 왔습니다. 아이들이 타는 셔틀버스를 타면서 산서 지역 구경도 많이 했는데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산서에는 지역 사회의 장점은 남아있지만 마냥 시골이라고 생각했는데 많이 도시화 되어있었습니다. 아이들이 학원도 다니고 스마트폰으로 게임도 하고 노래도 듣는 것을 보면서 조금 놀랐습니다. 그래도 아이들이 도시에 사는 아이들보다 많이 뛰어 놀고 순수한 모습이 많이 보여서 보기 좋았습니다. 원래 이름을 잘 못 외우는데 산서지역아동센터 아이들 이름은 하루 만에 거의 다 외워버렸을 정도로 아이들이 각자 개성 넘치고 귀여워서 애정이 많이 갔습니다. 의무감 때문이 아닌 진심으로 즐거워서 아이들과 열심히 놀았습니다.

특히 물 안전체험에 갔을 때 저희 선생님들이 시범을 보여주기 위해 계속 물을 맞고 많이 먹기도 했지만 아이들이 저희를 보고 좋아해서 저도 즐거웠습니다. 아이들이 저희가 오고 나서 점점 더 이른 시간에 센터에 왔는데 그 모습이 너무 귀엽고 고맙습니다. 밥 먹을 때도 제 자리를 챙겨주고 다시 또 오라고 말해주어서 기특하기도 했습니다. 한 센터에 두 번 이상 봉사 오는 이유가 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화봉사단으로서 이런 기회를 가질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5일이 제게 너무 소중한 시간이었고 또 잊지 못할 경험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다른 이화봉사단 활동에 참여해보고 싶고 이 봉사를 밑거름으로 다른 봉사활동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산서지역아동센터 박*연

전공과의 특성상 특수학교나 봉사센터, 기관에서 봉사를 많이 했다. 하지만, 그 봉사들에서 나의 역할은 이미 짜여진 프로그램들 안에서 장애아동을 돕는 것 뿐 이었다. 처음으로 이화봉사단에서 리더로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모든 준비를 해야 했기에 부담감과 책임감이 있었다.

봉사를 다녀와 보니 리더는 4박5일 간의 프로그램의 방향을 정하고 큰 그림을 그리며 팀원들이 아동센터에서 작은 역할들을 수행할 때 필요한 것을 뒤받치는 역할이었다. 각 프로그램마다 담당선생님을 배정했고 리더인 내가 모든 프로그램을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서 더욱 팀원의 역할이 명확하게 나뉘었던 것 같다. 아이들에게는 리더쌤(아이들은 보스쌤이라고 부르기도 했는데 엄청 귀여웠다. 뒤에서 사진만 찍고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 사람으로 찍힐지라도 더 좋은 프로그램이 되기 위해 다른 봉사자들이 아이들과 놀고 있을 동안 방 안에서 홀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생각했던 시간들이 의미 있었다.

개인적으로 산서지역아동센터에 대해 느낀 것은 다문화와 농촌 지역이었다. 처음에는 다문화가정에 대해 생각하지 않았는데 둘째 날부터 아이들의 언어수준과 가정배경 등을 알아가면서 대부분의 아이들이 다문화가정 아이들이라는 것을 알았다. 내가 학생이었을 때나 서울에서는 보기 힘든 아이들이 농촌지역에 가면 다수가 된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했고 점점 늘어갈 다문화가정 친구들을 위해서 어떤 지원을 해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경험을 했다. 또한, 농촌지역에서 생활했던 경험이 전혀 없는 나로서 농촌지역에서의 교육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었다. 산서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이 다니는 산서초등학교에는 모든 반은 1반 밖에 없고 1년에 2명씩은 전학을 가며 한 반에 고작 8명이라고 한다. 그리고 아동센터가 아니라면 외진 곳에 있는 집에서 나와 교육받을 기회가 거의 없고 한 마을 당 아동들이 2-3명(그것도 형제관계)으로 또래교육이나 주변 환경에서 교육받을 기회가 매우 적은 것을 보았다. 아동센터의 필요성을 깨달았고 우리에게 4박5일간의 프로그램이 이 아동들에게 평생의 기억으로 남을 수 있다는 생각과 동시에 소중한 교육의 기회라는 것도 알게 되었다.

처음으로 리더를 맡아보았고, 처음으로 4박5일이라는 긴 시간을 농촌에서 있어 보았고, 처음으로 20명 이상의 많은 아이들과 시간을 보냈다. 다만, 처음이 아니었던 것은 봉사를 받는 모든 학생들이 좋은 추억을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이화봉사단을 통해 더 많이 봉사자들도 성장하고 아동들도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했으면 한다. 그 땀 몰랐는데 돌아와 보니 행복한 시간이었다. 이화봉사단이 오랜 시간동안 유지되는 이유를 알았다.